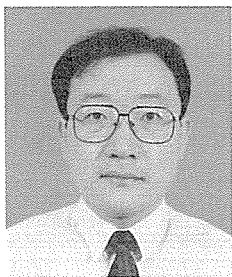


사이버대학에 대한 반성

지금 교육당국자나 많은 대학에서는 교수의 강의를 컴퓨터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이버대학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강의록을 통신망에 올려놓는 사이버교육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법을 압박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은 대학생들의 수를 늘리는데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교육수준의 질을 높이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趙煥奎
(부산대학교수/전자계산학)

아 무리 독일산 쌍둥이포 칼이 좋 다하더라도, 이것으로 면도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아무리 질레뜨 면도날이 좋다고 한들 이것으로 김장용 무를 다듬을 수는 없다. 그냥 아무런 조건없이 자동차와 기차와 비행기와 자전거 중에서 무엇이 가장 빠른 것인지를 묻는 것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다. 비행기가 제일 빠르다고 해서 종로 3가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일에 실제 비행기를 동원하려 한다면 아마 시동 자체부터 불가능할 것이다.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장애물이 있는 길에는 자전거나 작은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효과에 대한 비용을 따져보아야 한다. 아무리 그 뜻이 숭고하고 그럴듯한 목적을 내세워도 실제 진행과정에서 지나친 비용이 든다면 당연히 이것은 다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특히 최근들어 정보화 사회니 세계화니 하면서 첨단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교육에서도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비용과 효과 등 많은 문제점

그 중 하나가 사이버대학이 아닌가 한다. 지금 교육당국자나 많은 대학에서 추진하려는 사이버대학 계획을 접하는 나의 생각은 솔직히 비용과 효과면에서 볼 때에 비관적이다. 대략 그려지는 사이버대학의 그림은 이러하다. 교수의 강의는 컴퓨터를 통해서 진행된다. 예를 들면 강의록을 통신망에 올려놓는다. 또는 장비가 좀 더 첨단화되어진다면 비디오로 녹화된 강의장면을 멀티미디어 파일로 올려놓을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물을 내려 받아서(down) 공부하고 이 결과를 다시 담당교수에게 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편한 시간대에 필요한 강의만을 골라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분필가루 날리는 강의실도 이제는 끝나게 되며, 학생들은 헉헉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지각하지 않으려고 강의실로 내달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결과 각 명문대학의 강의를 모두에게 골고루 개방되어 대학간의 격차도 줄이고, 서울로의 집중화현상도 막아지며, 있는 집 학생이나 없는 집 학생이나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사이버대학이 그리는 최종의 그림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를 A에서 B로 옮기는 일에는 컴퓨터가 빠를지 몰라도 만일 B가

사람이 되는 경우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리고 말로 하는 강의를 그대로 글로 옮겨서 사이버 강의를 하는 일에는 강사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시간 정도의 말로 할 수 있는 강의를 글로 써야 한다면 보통의 경우 두 시간은 족히 필요하다. 특히 필자와 같이 외손타법의 느린 사람에게 이것은 큰 고역이다. 간단한 실험으로 30분짜리 TV뉴스를 모두 타이핑해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글로 옮겨 놓는다고 해서 그 느낌이나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말에는 억양으로 강조와 확신이 있지만 이를 글로 표현하기는 힘이 든다. 특히 칠판에 쉽게 그려가면서 해야하는 개념적인 도식이나 표를 워드 문서로 만들기는 힘들 것이다.

칠판글씨는 심리적 안정감

특히 칠판 강의에는 강의가 진행된 '역사'가 있다. 앞의 그림의 일부분을 지워가면서, 새로 그림을 추가하는 일은 통신망 상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실제 많은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칠판글씨가 모니터에 나타난 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한다. 교수가 칠판에 글을 쓰고 지우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정리하고, 때로는 쉬게 하는 묘한 효과를 준다. 그러나 컴퓨터 자료는 키를 하나 칠 때마다 앞으로 뒤로 확-확 넘어가므로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질문을 컴퓨터 통신망으로 하고 이것을 통신망으로 받는다는

것은 교육을 물건거래로 착각하는 큰 오류이다. 질문과 답의 생명은 바로 타이밍이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때 바로 적절한 답을 해주고, 다시 그 해답에 재차 질문을 할 수 있을 때만이 효과가 배가된다. 아침에 한 질문이 그 다음날 저녁에 전자우편으로 도착한다고 해보자. 이 얼마나 맥빠지고 한심한 수업인가. 아마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틀 정도 뒤라면 질문을 한 학생도 자신이 한 질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지금과 같이 모여서 얼굴을 쳐다보며 하는 강의에서 얻어지는 인간적인 신뢰감과 진지한 수업분위기에서는 단순한 지식 이상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이버 강의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사이버 강의,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하나의 강의교재를 수만명의 사람이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 강의의 질이 강의실에서 하는 것과 효과면에서 다를 때만 주장될 수 있는 이점이다. 바꿔 말하자면 사이버 교육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법을 압박할 수 있다. 모든 교과목에 한사람의 교수만 남게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개인마다 준비되어야 할 컴퓨터와 업그레이드 비용 역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 그쪽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지금의 낙후된 강의실부터 개선하는 것이 순서이다. 두 겹의 칠판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이중 칠판부터 갖추고, 각 방마다 대형 모니터부터 설치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이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교수대 학생비율을

더 낮춰야 하는 것이다.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안돼

우리나라에 대학생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의 수는 어느 나라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하다. 문제는 잘 교육받은 학생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사이버대학은 대학생들의 수를 늘리는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교육수준의 질을 올리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것은 시작할 때에는 항상 큰 매력을 가진다. 시화호도 그랬었고, 경부고속철도도 그러하였으며, 세계화와 OECD가입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멋진 일에는 항상 큰 함정이 있다. 교육관료들은 지금과 같은 멋진 사이버대학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학생과 교수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경망스런 컴퓨터 기술에 현혹되지 말고 보다 기본적인 글쓰기와 책읽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빛나는 워드 프로세싱이 글의 내용까지 고쳐주는 것은 아니다. 무 깜는데에는 부엌칼이, 면도에는 면도칼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컴퓨터가 더 잘하는 일은 컴퓨터가 해야 한다. 교수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보다, 그 가르침을 주고받기 위하여 준비된 도구를 배우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면 뭔가 잘못된 일이다. 교육과 같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의 중간에 자꾸만 기계를 넣어서 그 통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⑤7